

자자석 박사의

불교공부 그대



부처님, 세상 속으로...

인도 비하루 주의 수도인 파트나는 인도불교사에서 제3결집이 시행된 파탈리푸트라 유적이 있는 장소이다. 이곳에서 켈커타행 기차를 타고 두어시간 달리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드 가야가 나온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바로 이곳의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성취했다. 불교의 서막이 열리는 역사적 장소이기도 하다.

필자는 모처럼 주어진 연재의 서두를 어떻게 시작할까 궁리하다가 불교의 발상지에서부터 사건을 더듬어 가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했다. 인간의 역사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고, 사뭇게 역사적 해석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붓다가야에서 완성된 깨달음이 없었더라면 불교라는 종교도 없었을 것이며, 부처님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 헌신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달라졌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전설에 의하면 출가수행 당시의 부처님은 많은 여정을 거쳐 다섯 비구와 이곳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다. 극심한 고행으로 육신은 지칠대로 지쳐 있었다. 그때까지의 고행을 포기하고 네만자락 강에 들어가 목욕을 한 뒤에 기어오르던 언덕으로 올라왔다. 그리고 수자탄라 처녀의 공양을 받고 기력을 회복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그의 행

는 점이다. 불전에서는 더욱 심각하게 이때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악마가 유혹하는 장면이다. "세상에서 목숨처럼 소중한 것은 없소. 목숨이 있어야만 종교적 수행도 가능하오. 당신과 같은 고행 방법으론 천에 하나라도 성공할 수 없소. 마음을 억제한다든가 번뇌를 끊어버린다든가 하는 것은 당초부터 무리한 일요. 그러한 짓은 그만두도록 하시오. 훨씬 즐거운 방법이 얼마든지 있소. 바라문이 하는 것처럼 불을 쬐고 제물을 바치면 얼마든지 공덕이 쌓일 것이요" 이러한 유혹에 "악마여, 내가 추구하는 것은 단순한 이익이 아니다. 목숨은 언젠가 죽음으로 끝날 것이므로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무리 강물이 깊더라도 실재없이 바람이 불어닥치면 마침내 말라버리듯이 고행을 계속하면 육체나 피는 말라버리지만 내 마음만은 항상 고요하게 가라앉는다. 의욕과 노력과 정신통일이 내게는 갖추어져 있다. 그 위에 지혜도 있다. 헛되이 살아서 무엇할 것인가. 용감한 군인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너와 결전을 하리라"고 선언한다. 이로서 악마는 물러났다고 한다.

이상의 대화를 살펴보면 악마는 부처님에게 평범한 삶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욕망과 관습과 자기를 확장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그 이외의 다른 것은 생각하지도 않는 삶이다.

마왕 유혹=일상의 즐거움

마왕 물리침=세상 구제

동은 당시의 수행풍습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에 속했기 때문에 다섯 비구들은 부처님께서 타락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의 곁을 떠나게 되었다.

출로 남은 부처님은 '저 나무 아래에 앉아 도를 이루지 못하면 결코 일어설지 않으리라'는 비장한 결심을 하고 근처에 있던 나무 아래에 앉아 선정삼매에 들어가며 마침내 깨달음을 성취하게 되었다. 이때 그늘 삼아 앉았던 나무의 원래 이름은 필바라수였지만 이후에는 깨달음의 나무란 의미를 지니는 '보리수'로 개명되어 수많은 불교도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현재도 이 나무는 보드가야에 전해지고 있으며, 많은 순례자들의 예배를 받고 있다. 중국의 순례승 남현스님과 현장스님도 이 나무에 합장했다는 기록이 <법현전>과 <대당서역기>에 남아 있다. 그러나 불교의 쇠퇴와 이교도의 범람으로 이 나무는 근대까지 정글에 묻혀 있었으며, 1881년 영국인 커크햄에 의해 발굴되어 세상에 소개되었다.

깨달음이 무엇인지 도를 이루지 못하면 죽는 현이 있어도 일어나지 않겠다는 비장한 각오는 오늘을 살아가는 나약한 심성의 우리들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다.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범한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 누구나 세속적인 욕망을 포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이 세상에 오욕락에 대한 달콤함 보다 더한 유혹은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욕망이 인간의 역사를 발전시키는 동력인 이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말하기도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범속한 이익만이 아니라 청량한 정신과 번뇌는 지혜가 있어야만 욕망으로 점철되는 역사의 바퀴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악마의 유혹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은 현실을 이상적인 세상으로 바꾸는 데는 자기희생이 필요하며, 그런 점에서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결론을 보이고 있다.

인간들의 욕망이 절제된 평화와 인력이 넘치는 사회,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자유와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사회는 어떠한 이상에 불과할 수 있다. 그렇지만 부처님처럼 죽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러한 이상을 구현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단순한 이익이 아니라, 너무 커서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이익이다. 마왕 파순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이상과 같은 결심이 있어서 가능했다. 그리고 부처님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고, 보다 밝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본지 상임논설위원 · 불교학 박사>

◆10월 20일 해운정사에서 국제 무차선 법회가 열립니다. 이번 무차선법회를 여는 목적과 기대는 무엇입니까?

"동양 정신세계의 근간을 이룬 3국인 한국, 중국, 일본의 선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적인 무차선 회합입니다. 이처럼 동양 3국의 정신세계 거장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유사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 큰 뜻이 있습니다. 특히 세계의 지식인들이 마음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수행법으로 선수행의 가치를 값지게 인식하고 있는 시점에서 열리는 국제 무차선법회라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선에 관심 있는 모든 국민은 다 참여해서 자기의 참 모습을 찾는 선 수행의 묘미를 맛보게 되길 기대합니다. 진정 행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참나를 닦는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선 수행의 가치가 여기에 있고 모든 지구촌 사람이 참나를 밝히는 선 수행에 눈을 떠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제 무차선법회는 온 국민은 물론 전 세계인들이 참진치를 소멸하고 지혜의 문으로 나아가갈 수 있는 새로운 정신세계의 지침을 마련해 주는 법석이 될 것입니다."

◆무차선법회는 깨달음의 경지를 드러내는 문답인 법거랑 없이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의심처를 묻고 답하는 문답에서 어떠한 질문과 대답이 진정한 의미의 법거랑인지 또 법거랑이 왜 중요한지 말씀해주시고.

"선은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은 살림살이입니다. 그 깨달은 살림살이는 선지식이 아니면 설파하지 못합니다. 최상승의 진리는 도를 깨달은 자만이 알 수가 있고 법을 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차선 법회는 최고 경지의 법문을 듣고 의심처가 있으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선지식이 부처님을 대신 해서 부처님이 깨달은 세계를 전수하고 의심처를 풀어주는 것이 무차선 법회의 진정한 뜻입니다. 이때 오가는 문답들은 일반인들은 이해가 어려울 것입니다. 묻는 이와 대답하는 이 모두가 밝은 지혜의 눈으로 진리의 실체를 꿰뚫을 수 있어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선의 경지를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법거랑은 스스로의 공부를 점검하는 자리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을 지켜보는 이들에게 새로운 발심의 계기가 되어 진리의 세계가 바로 이곳에 있음을 자각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기에 충분합니다."

◆진리의 세계를 드러내는 선문답은 일반인들의 알음알이로 온전히 이해하기란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차선법회의 백미인 법거랑을 이해할 수 없다면, 무차선법회는 일반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 법이 어렵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중생은 성인의 경지를 모릅니다. 진리 자체는 성인의 세계이니 중생과 성인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세계를 알려면 일상 생활 동안 참나를 밝히는 선을 꾸준히 수행해서 참모습을 드러내고야 말겠다는 대발심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수행 끝에 참나가 드러나면, 모든 진리는 자신의 참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반인들은 무차선법회를 발심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국제 무차선 법회를 통해 선의 묘미를 맛보고 어떠한 선문답에도 막힘없는 자재권을 얻을 때까지 물러서지 않고 정진하겠다는 대발심을 하십시오. 그러한 발심으로 선 수행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그렇지 않은 이들과는 몇 생을 앞서게 될 것입니다."

◆깨달음의 경지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

가까이서 뵈 큰스님

진제스님 (동화사 조실)

“禪은 부처님 진리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면서 나머지 시간에 화두참구에 전진할 때 마음의 지혜가 개발된다고 진제스님은 강조했다.

한국 불교는 특정 교리나 교단에 치우치지 않거나 한국 불교는 선우위의 분위기가 강하다. 승의 수행법으로 인식하는 스님과 불자들을 하는 수좌들은 최고의 예우를 받으며 존경의 교의 많은 병폐는 전통적인 선수행법이 제 비판과 함께 일부에서는 간혹선 무용론도 다간을 지나치게 강조한 선불교는 수행방법론 한 나무를 키워놓은 모양새를 하고 말았다.

이렇게 한국 불교 특히 선불교를 격정하해운정사 조실 진제스님은 부처님 심인법(를 세계에 알리고자 10월 20일 국제 무차선 한국 선종의 중흥조인 경허 해월 운봉 항곡 스님을 만나 한국 선불교의 전통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여쭈었다.

향상(向上)의 일로가 있고 향하(向下)의 일로가 있고 그 밑에 여래선(如來禪)의 경지가 있고 그 밑에 법신(法身)의 경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네 계단으로 진리의 세계를 드러낸 것인데, 법신의 경지와 여래선의 경지는 향상의 일로에 비하면 좀 낮습니다. 향상의 일로를 알아야 부처님의 바른 살림을 알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아는 자만이 알 수가 있는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쪼개서 노출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향상의 일로나 향하의 일로의 테두리 안에서 질문하고 답을 할 수 있을 뿐, 일반인들은 깨달음의 실체를 알아 볼 수가 없습니다. 깨달음의 세계를 쉽게 해석하고 분석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중생의 까마귀는로는 곳곳에 드러나 있는 깨

10월 무차선법회 발심계기로 내면의 참나 찾아 각성하길

는 '깨달음은 신비한 무엇이다'에 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소식을 했다거나 깨달았다고 하는데, 깨달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깨달음의 실체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는 연구로서 표현하지만,

달음의 실상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깨닫고 보면 밥 먹고, 잠자는 모든 일상이 그대로 깨달은 경계를 생활화하는 것일 뿐 특별한 깨달음의 경지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알고 모르는 차이로 중생과 범부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깨달음의 경지에 대한 막연한 알음알이보다는 화두 일념삼매를 통한 생생한 깨달음의 체험을

365일 벽에 걸린 달력은 말없는 포교사입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8주년을 축하합니다



■ 사진 · 안정현 / 산사의 향기, 탑이 있는 풍경, 대불, 적멸보궁과 기도도량, 석굴암은 한국불교사건 예술의 독보적인 안정현고수의 작품이다. 안고수는 월간 영상 편집을 20여년간 수많은 불교문화유산을 사진에 담아왔다. 석굴, 국립공원, 석굴암, 영경의 미소, 선의 세계 등의 사진 작품들이 있으며, 현 한국 사진작가 협회 회원 및 대한사진예술가 협회 지원위원으로 있다



매주마다 펼쳐지는 54컷의 친절한 동자승의 세계를 만나보세요. 연말, 연시 선물로 최고입니다.



■ 크기 : 대(30×31cm) 국6절 소(26×26.5cm) 사륙12절 ■ 매수 : 표지포함 13매 ■ 특수고급 제본(TW스프링) ■ 주문부수 : 100부 이상(역1도 인쇄) (미니 차걸이 달력은 200부 이상, 주력은 50부 이상 주문시 금박인쇄)



전국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주문하시면 편리합니다

02 · 737 · 8881